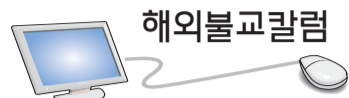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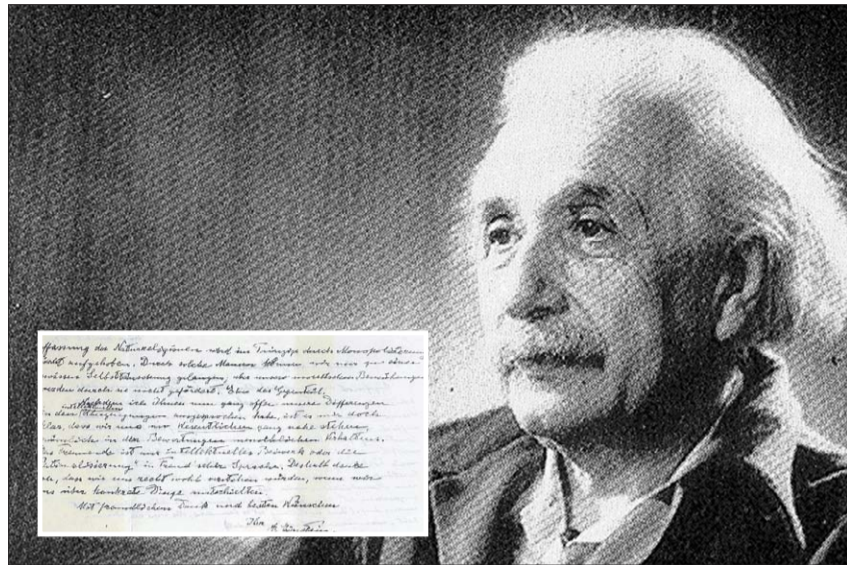


# 아인슈타인 “불교는 우주적 신앙”



독일태생의 유대계 물리학자로 1921년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아이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긴다. “불교에는 우리들이 장차 우주적 신앙에서 기대하게 될 특징들이 함축되어 있다. 불교는 특정한 신의 존재를 초월하며 독단(dogma)과 신화체계를 회피한다. 또 불교는 자연과 인간의 영혼을 함께 아우른다.” 이처럼 그는 불교가 지구인의 신앙의 범주를 뛰어넘어 우주적 신앙으로 승화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그의 예언에 화답하듯 할리우드의 대전법사인 조지 루커스 감독은 영화 ‘스타워즈’를 통해 그 개연성의 일부를 가시화한다.



아인슈타인의 ‘무신론’ 관련 편지는 5월 15일 경매에서 4억 2000만원에 낙찰됐다.

아인슈타인의 친 불교적인 언급으로 인해 그가 독일의 저명한 교향악단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도반처럼 ‘드러나지 않은 불자’라 속단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렇듯 초조한 패거리 발상은 우리 불교인의 몫이 아니며 굳이 그럴 까닭도 없다. 어쨌든 신앙의 문제에 관한한, 그는 중도(中道)를 벗어난 적이 없는 듯하다. 그래서 기독교적 양분사고와 마녀사냥에 감동여진 일부 서구인들은 그가 모호하고 심지어 종교관을 지녔다며 눈을 감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천사를 할게, 너는 악마가 되어줘” 하는 투의 가스로운 독단과 신화체계는 그를 몹시 피곤하게 했나보다.

그런데 5월 13일 영국 런던의 메이페어의 블룸스베리 경매장에 그의 종교관을 명증하는 자필서한이 모습을 드러냈다. 경매관계자의 발표에 따르면, 이 서한에 그는 ‘신을 믿는다는 건 우치한 미신’이며 ‘유대인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다’라 쓴다. 또한 그는 ‘유대인들과 친근감을 느끼는 모든 타인들에 대해 지닌 친근감과 별다른 게 없다’고 잘라 말한다. 다음은 영국의 가디언 지의 관련기사 중 일부다.

그는 1954년 1월 3일 철학자인 에릭 굿킨트에게 보낸 독일어 서신에 이렇게 썼다. ‘신(God)이란 단어는 인간의 나약함(human

weakness)의 표현이자 그 산물일 뿐이다. 그리고 경전(the Bible)이란 거룩해 보인다고 할 때는 꽤나 유치하고 원시적인 전설들(primitive legends which are nevertheless pretty childish)의 모음이다.’ 경매관계자는 지난 50년 이상 한 개인소장자가 보관해온 이 독일어 서신이 5월 15일에 팔리겠다고 밝혔. 동 서신에서 그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제2대 대통령으로 추대하려는 요청을 거절하며, 유대인이 신의 선택을 받은 선민(選民)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한마디 한다. ‘어느 종교들처럼 유대교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미신 그 자체다(an incantation of the most childish superstitions). 나는 언제 어디서든 유대인들과 가까이 어울린다. 그러나 내가 그들과 나누는 정서적 친밀감은 타인들에 대한 친밀감과 전혀 다를 게 없다. 내가 체첸한바, 유대인들이 힘이 없어 타인들의 보호를 받을지언정 자신들이 타인집단보다 낫다고 내세울 건 전혀 없으며, 아무런 선택도 받은 바(anything chosen) 없다.’ 이 세기적인 과학자는 ‘종교가 없는 과학은 질질발이며,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라 말하는 등 대체로 종교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경

매관계자는 그가 이 서한을 통해 종교라는 주제에 대해 우회하지 않고 분명한 견해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 하지만 실제로 그는 그런 딱딱한 얘기보다는 우스개를 훨씬 좋아했다. 어떤 이가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어찌 될까요?”라고 묻자, 그가 대답한다. “난들 알겠어요? 암튼 그 답에 4차 대전이 터지면 그뎨 서로 막대기로 손바닥을 갖다 대면 일 분의 한 시간이지, 예쁜 아가씨랑 함께 앉아 있으면 한 시간이 일 분이지. 그게 상대성이론입니다.” 한마리를 휘날리며 자전기 타겟 즐긴 그는 자신의 서한이 50여 년 후에 경매장에 나올면 이리석은 인간들이 또 티격태격할 걸 짐작한 듯 이런 너스레도 미리 남겨둔다. > “무한한 건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주, 그 두 가지죠. 근대 난 우주의 무한함에 대해선 별로 확신이 안서겁니다.” > 성휴 스님 > 참조: AFP, Guardian

# “불교 철학 바탕으로 창작활동”

월드 스타 불심도 스타 올리버 스톤 ①



영화감독이자 시나리오작가이며 제작자, 특히 조지 루커스와 더불어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영상전법사라 할 올리버 스톤은 참으로 사연이 깊고도 많은 도반이다. 지금껏 예순 해 넘게 살아온 그의 삶이 곧 기나긴 만행이자 한편의 서사시라 할 수 있다. 그는 스스로 지나온 역정을 한마디로 무문관(the Gateless Passage)이라 말한다.

그 역시 할리우드의 명작극가인 필립 글래스 도반처럼 명문대학 출신의 구도적인 방랑자이며 또한 꿈을 먹고 자라는 영원한 천재소년이다. >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 보건데, 내가 여태 해낸 모든 일들은 오직 꿈을 놓치지 않았기에 실현이 가능했다. 꿈은 나를 늘 밀어주고 이끌어주며 땀을 흘릴 수 있다는 믿음을 안겨줬다. 나는 잃었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일을, 즉 거친 전쟁터에 나가 잠깐 인간미를 배우고, 뱃사람이 되어 너른 바다를 떠돌며 인생고해(人生苦海)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여인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는 아이들도 갖게 됐다. 그 모든 일들이 이뤄지도록 해준 것이 바로 꿈이다. 나는 가없는 운회의 길목에서 창작활동을 한다. 그리고 모든 중생이 꿈꾸고 그러는 바를 영화로 만들어 보여준다. 그 모든 일이 이뤄지도록 도와준 것 또한 꿈이다.” >

그는 현대 영화계를 통틀어 영화제작에 있어 흥행성과 경제적 고려보다는 독특한 작품성에 역점을 두는 영화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손수 대본을 쓰고, 감독과 제작까지 도맡았던 ‘어느 일요일에’ ‘하늘과 땅’ ‘7월 4일 생’ ‘닉슨’ 등은 폭발적인 인기와 더불어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대본을 쓰고 감독한 ‘플래툰’ ‘JFK’ ‘살바도르’ 등은 직설적인 사실성과 냉혹한 긴박감으로 인해 관객들을 섬뜩한 전율의 파장으로 내몰아간다.

그 밖에도 ‘타고난 살인자들’ ‘문’ ‘월스트리트’ 등 시대적 결박점을 줄들이 내놓은 그는 1946년 뉴욕 시에서 출생한다. 그의 아버지인 루 스톤은 무신론자인 유대계 미국인으로 증권거래 부문에 종사했는데, 사업이 한창 번창하던 시기에는 투자자들을 위해 정치와 시사경제에 관

한 월간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그의 어머니 재클린은 프랑스 샹류 가문 출신으로 낙천적 품성의 가톨릭 신자였다. 본디 불자가 아니던 그가 어떻게 불연을 맺고 지금껏 이어오는지 ‘오스틴 크로니클’과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기자가 묻는다. “종교에 관한 질문인데요, 감독님께서 가톨릭신자인가요? 유대교도인가요?” 그의 대답이다. “둘 다 아닙니다. 저는 뉴욕에서 일일 성경반에 다녔으니까 오히려 개신교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한 셈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해보자 신앙심 같은 건 별로 없었죠. 전 그냥 놀기 좋아하고 뭐든 제 맘대로 하며 지냈어요.” 상당히 부유층에 속하던 그의 가족은 맨해튼과 스탠퍼드, 코네티컷 등지의 고급주택가에 살았으며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남부럽잖은 유년기를 즐긴다.

다시 기자가 묻는다. “그럼 감독님께서 불자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불문에 들어선지 꽤 오래됐지만 지금도 항상 불법을 새로이 가꾸고 익히는 학생입니다.” “네, 그런데 불법을 늘 새로이 가꾸고 익힌다는 무슨 뜻인가요?” “깨우침을 향해 늘 정진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제 화제가 자연스럽게 불교와 영화의 관계로 접어든다. “그렇다면 불교 수행이 감독님께서 만드는 영화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지요?” “물론이죠. 제가 의도하던 안하던 늘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그렇게 되도록 늘 노력을 합니다. 좀 의아하게 여기실지 모르지만, 사실 불교와 영화는 서로 밀접하게 엮여있어요.”

기자의 구체적인 질문이다. “네, 그렇다면 감독님의 불교철학과 내면세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내비쳐진 작품은 어떤 걸까요?” “‘하늘과 땅’입니다.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에요. 한 동양인이 지닌 아름다움, 그리고 자신에게 처절한 고통을 안겨준 적마저 용서할 수 있는 고매한 불성을 보여주죠. 이는 정말 위대한 불교적 윤리관입니다. 독일인 불자였던 그녀의 고향로 저도 불제자가 되어 처음엔 베트남 사원에 다니다 나중에 티베트 사원으로 옮겨가 됐어요.” > 성휴 스님

## 구나케투, 베트남 불교세미나 참석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소재한 서방불교연맹의 지회장으로 환경과 사회 분야에서 오랫동안 역동적인 참여불교활동을 벌여온 구나케투도반이 5월 13일부터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개최된 ‘정의 민주 인권사회 건설에 있어 불교의 공헌’이란 주제의 세미나에 동 연맹의 대표로 참석했다.

출처:FWB

## 할리우드 불자들 미안마 피해습기 나서

5월초 미안마를 강타한 사이클론 나르기스의 여파로 현재까지 추정 사망 또는 실종자 약 13만 명과 엄청난 수의 부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 도반 등 할리우드 불자들의 자비행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동양계 입양아에게 직접 불교를 가르치는 유명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도반은 세

계적 아동보호지원과 쓰나미 등 각종 재난구호기금으로 2006년 한 해에만 미화 800만 달러를 희사한 바 있다. 현재 생존자들을 위한 전파, 담요, 기본 식량과 의료장비 등의 공급이 긴급하나 미안마 군부는 피해실태를 축소어폐하고 보도를 통제하며 인국비자의 발급을 제한하는 등 국제적인 구호의 손길을 외면함으로써 작품피해, 식수오염 및 기아확산 등 후속 재앙의 위험성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출처: KTV

## ABC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 A small kid monk beside him giggled “I knew it earlier”

곁에 있던 동승이 킁킁거렸다. “난 벌써부터 알았는데”

As a Buddhist priest became more famous, bus loads of visitors started visiting his monastery. Most of them made a fuss about as if visiting an amusement park. And the priest said in deep sigh, “Sometimes, I think many of these people just stop here because they have to use our bathroom”. A small kid monk beside him giggled, “I knew it earlier.”

어느 스님이 점점 널리 알려지자 방문객들이 버스 하나 가득 줄지어 그 절로 찾아들기 시작했다. 마치 놀이공원이라도 놀러 온듯 통통소란을 피우는 그들을 바라보던 스님이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허, 어떤 댜 저분들이 그저 우리 절의 해우소가 필요해서 들리신 것 같아.” 그러자 곁에 있던 꼬마 동승이 킁킁거렸다. “난 그거 벌써부터 알았는데”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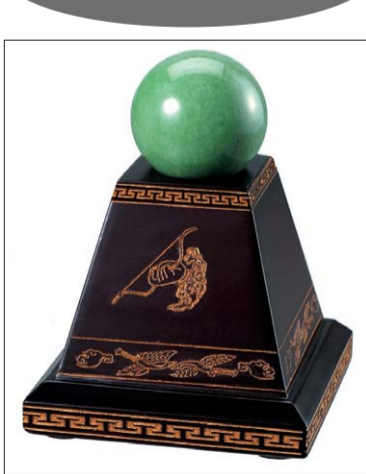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 \$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동협032-12-193445 이상하

###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기원,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민, 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델,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방, 주유소, 신사서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알 좋고 불경기에 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 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거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헛손님

## 영험의 구슬



##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릅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한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같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

###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년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 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진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해침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웅공에도 들고있어 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어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행생들은 한두문

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관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보궁여의주는 수행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력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행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 및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 \$95,000원 문의(02)741-4488 동협032-12-193445 이상하

## 평생부지지갑

##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원하는 계획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사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가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을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다

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수거속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치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립니다. 납성용 금나노 복지갑 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동협032-12-193445 이상하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